

#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 '생태훼손 우려'

광주 광산구가 풍영정천의 나무 수백여 그루를 자른 뒤 방치한 것을 두고 환경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광산구와 '풍영정천 사랑모임'·풍영정천 살리기 추진위원회(이하 환경단체)에 따르면 환경단체는 지난 7일 광산구 풍영정천 7km 구간에서 삼어진 버드나무·족제비자리 200여그루가 잘려나간 것을 발견했다.

환경단체 조사 결과 광산구가 지난달 1일부터 16일까지 풍영정천 상·하류(비아동 도촌고~운남동 근린공원)의 나무를 벌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구는 풍영정천에 자연공법 실험용 블록이 설치돼 있는 만큼 홍수 예방 차원에서 유속(하천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나무를 베었다고 설명했다.

또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해 이 같은 조치를 벌였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는 '수생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천가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를 자를 경우 조류·동물·수서곤충의 서식처가 사라지게 되고, 오염 정화 기능도 잃게 된다는 설명이다.

환경단체는 겨울철 하천 흐름이 느려질 가능성이 적은 점, 식물이 살 수 없는 요인으로 제기되는 블록을 제거하지 않은 채 경사면 나무들까지 벌목한 점을 들어 광산구가 자연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또 구가 풍영정천 살리기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주민 참여를 배제한 행정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추진위원회는 민관이 지난 2016년 8월 '풍영정천을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구성된 단체로 각종 환경 정화과 수질 오염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천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하천법 46조에는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광산구가 베어낸 나무를 방치해놓았다는 것이다.

김용제 풍영정천 사랑모임 대표는 "광산구가 벌목해놓고 하천에 방치해둔 것은 하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민 안전을 고려해 자른 나무를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천에 자생하는 나무는 물 흐름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홍수 피해를 줄여 준다"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하천을 관리하면 악순환만 계속된다.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노력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나무 수백 그루 자른 뒤 방치...대책마련 촉구  
"수생태 환경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 행정"  
구청 "홍수 예방·민원 해결...조울 거칠 것"

고 덧붙였다.

이장연 풍영정천 살리기 추진위원장도 "도심 속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천을 정비할 때 민원 협력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협의·조율하는 과정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홍수를 대비, 유속 저하로 침수 우려가 있는 지장물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황룡강과 풍영정천을 정비했고, 풍영정천 벌목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하천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여건상 자른 나무를 치우지 못했다. 낄씨가 풀리면 곧바로 치우 예정"이라며 "향후 하천 관리·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 조사 결과 지난해 말 풍영정천 성덕고 인근 200~300m 구간(하천~인도 사이)에 식재된 경계목(파라칸다·광나무) 수백여 그루도 벌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형택 기자



**눈썰매 타요** 함박눈이 내린 9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금선사 연꽃어린이집 원생들이 스님이 끌어주는 눈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울겨울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급성...전년比 45.8%↑

이번 주말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올 겨울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전년보다 늘어 주의가 당부된다.

9일 질병관리본부의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7일까지 38일간 발생한 한랭질환자수는 22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53명 대비 45.8%(70명) 증가했다. 사망자수는 7명으로, 전년(1명)보다 크게 늘었다.

질환은 저체온증이 79.8%(178명)이 가장 많고, 동상 34명, 비동결 1명, 기타 10명 등이다.

발생장소는 길가(74건) 등 실외가 74.4%(166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빙 중 한 곳은 실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집(41명), 건물(9명) 등순으로 많았다.

발생시간은 자정~다음날 3시와 오전 6~9시가 각각 3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낮 12시~오후 3시 30명, 오전 9~12시, 오전 3~6시 21명 등이다.

올 겨울 한랭질환자 중에서는 남성(167명)이 74.9%로 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44명), 60대(38명), 70대(33명) 등 순이다. 셋 중 한 명이 65세 이상으로, 전체에서 38.8%(86명)의 비중을 나타냈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96명으로 가장 많고, 노숙인(14명), 주부 학생(13명), 농업·어업·축산업 종사자(11명) 등으로 분석됐다.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참호·침수족, 동창 등 증상과 종류가 다양하다.

가장 환자수가 많은 저체온증은 체온이 35°C 이하로 떨어져 정상체

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다. ▲어눌한 말투와 기억장애 ▲의식 흐려짐 ▲지속적 피로감 ▲팔·다리 심한 떨림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심할 경우 근육 무력화, 착란증세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눈·비가 내리는 습한 날씨에 산악이나 장갑에 딱이 찬 상태가 장시간 지속될 경우 생기는 참호·침수족 등도 주의가 필요하다. 초기에는 피부가 벗겨 폭욕탕에 다녀온 듯 짜글짜글한 상태지만 점차 통증이 생기면서 동상과 유사한 증세로 발전한다.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시 내복 등 방한용품 꼭 갖추고, 방풍 기능이 외부를 준비해야 한다.

뉴스스

## 안보리 제재에도 중국서 北수산물 밀거래 여전

북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동북부 일부 지역에서 북한산 수산물이 유통되어도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고 NHK가 9일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8월 5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는 북한의 수출금지 대상 품목에 수산물도 포함됐으며, 중국은 같은 해 8월 15일부터 수산물을 포함한 북한산 제품 일부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NHK는 이날 방송에서 중국 동부 길림(吉林省)에 위치한 시장 등을 직접 방문해 북한산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 등을 촬영해 공개했다.

수산물 매장은 '북한 해산물'이라고 쓰인 간판을 내걸고 북한산 꽃게를 판매하고 있었다.

가격은 대개의 경우 1kg 당 약 2000원(약 1만 9000원), 털게가 1kg당 2700원 정도로, 시장관계자는 북한에서 밀수로 수산물을 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산 게는 러시아산 게의 절반 가격 정도로 판매된다고 덧붙였다.

길림성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작년 8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채택 직후에는 해산물 판매점들이 영업을 중단했지만, 이후 영업을 재개한 매장이 있다고 NHK는 전했다.

해산물 판매업자인 한 중국 남성은 "매일 (북한산 해산물이) 들어오고 있다. 제재 직후는 통제가 엄격했지만 이후 북한의 해산물은 라오닝(遼寧)성 항구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재에 따라 북한산 수산물 거래량은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북한 어선이 해상에서 중국 어선에 해산물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밀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주로 라오닝성의 동부 항구를 통해 중국에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17년 프랑스의 불발 테러 20건

프랑스의 제라르 콜롱 내무장관은 8일 (현지시간) 2017년 한 해 동안 프랑스에서 실제로 끝난 테러 공격이 20건에 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르 프로그레스' 신문이 인용 보도했다.

콜롱 장관은 "우리는 모든 곳에서 경계를 해야만 한다. 오늘 날에는 우리가 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장소나 지역이 따로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프랑스 내무부가 지난 해 마지막으로 발표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실제 한 테러 위협의 수는 13건으로 나왔지만, 콜롱 장관은 새로 추가된 7건의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려 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가장 최근의 테러 모의 사건으로는 21세 남성과 19세 여성이 12월 말에 리옹과 파리에서 각각 프랑스 안보요원들에게 체포된 경우를 포함해 여러 명의 체포가 있었다. 이 사건들은 서로 연관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으며 별도로 공격행위를 모의한 경우였다.

그 밖에 11월 7일에는 소셜 네트워크에 "충격적인" 발언을 올린 10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지난 해 여름 프랑스에서 아무에게나 칼을 휘두르며 공격하려던 10대 한명이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프랑스와 스위스 경찰이 공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었다.

## 濠동성결혼식 9일부터 공식 허용

호주 정부가 동성결혼을 허용하면서 결혼식 한 달 전에 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마지막 정해가 사라진 9일 0시 전국적으로 수많은 동성부부가 결혼식을 올렸다.

이는 지난 12월 9일 시행된 동성결혼 허용법에 결혼의사가 있는 게이와 레스비언들은 이를 미리 신고한 뒤 한 달후 결혼할 수 있도록 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9일이 동성결혼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첫 날이 되었다. 이 유예기간은 최근 몇 주일 동안 이미 결혼한 일부 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는 결혼 당사자 중 한 명이 불치병에 걸렸거나 새 법에 따라 결혼식이 개시되는 날짜에 해외 거주 친척들이 호주행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호주 국회는 지난 해 11월 실시한 인터넷 전국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동성애자의 평등한 결혼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오자 동성결혼 허용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호주에서는 원래부터 모든 결혼식은 한 달 전에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뉴스스

정부 3.0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 다들, 안녕하시죠?

우리 남편은요...  
양치로 죽어 있습니다.

다들 건강검진으로 조기발견해서 수술도 받고,  
이제 3개월에 한 번 검사만 받으면 될 거라고  
가벼워졌습니다.

돌이켜 보면  
늦치고 지내, 그래서 있고 지내 시간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발생률이 높고 조기진단으로 치료가 수 있는 5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합니다.  
※연말에는 검진기량이 한정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암  
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

법무·건강검진 등 자격요건, 관련 서류 확인